

## 경성제국대학 예과 캠퍼스 배치의 변화과정

이정우<sup>1</sup>, 김명선<sup>2\*</sup>

<sup>1</sup>배재대학교 건축학과, <sup>2</sup>선문대학교 건축학부

### Change Process of a Campus Site Plan of the Preparatory Course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Jeong-Woo Lee<sup>1</sup>, Myungsun Kim<sup>2\*</sup>

<sup>1</sup>Department of Architecture, PaiChai University

<sup>2</sup>Division of Architecture, Sunmoon University

**요약** 경성제국대학 예과(1924~1945)는 식민지 조선 최초의 근대적 대학인 경성제국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미리 거쳐야 하는 일종의 예비교육기관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 학교는 근대 고등교육시설 역사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지만 관련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성제국대학 예과 캠퍼스 배치의 변화과정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 소장 경성제국대학 예과 설계도면과 학교일람을 중심으로 문헌 자료를 분석한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1) 캠퍼스 건립 당시 부지는 한적한 교외이자 미개발지역인 청량리였으나, 부지 남측과 서측에 도로가 있고 가까이 전차역과 기차역이 입지해 있었다. 2) 캠퍼스의 변화과정은 1936년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3) 전기(1924~1935) 중 개교를 전후하여 단기간 급박하게 캠퍼스가 조성되었는데, 당시 캠퍼스의 배치 특성은 캠퍼스를 용도에 따라 교사동 영역, 기숙사 영역, 운동장 영역의 3개 영역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4) 후기(1936~1945)에는 부지면적이 대폭 확장되고 건물들이 증축되었다. 그러나 부지확장은 제2운동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였고 건물증축은 교사동과 기숙사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 건물들의 밀집도는 높아지고 명확했던 전기의 캠퍼스 영역구분은 불분명해졌다.

**Abstract** The Preparatory Course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PCKIU) w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one had to go through in advance to be admitted to Keijo Imperial University (KIU). PCKIU occupies a unique position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higher education facility, but studies related to PCKIU are insufficient. Hence,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 process of the campus site plan of PCKIU.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literature on the architectural drawings and handbooks of PCKIU and KIU,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1) The campus site was a quiet suburban and undeveloped area, but there were two roads around the site, and a tram station and a train station were located nearby the site. 2) The transition of the campus site can be divided into distinct transitions during two periods as of 1936, respectively. 3) During the former period (1924~1935), the campus was constructed within a short time, and the campus site was clearly divided into three area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use. 4) In the latter period (1936~1945), the campus site was greatly expanded but not for building extension. So, several buildings were built or extended inside the existing areas during this period. As a result, the density of the buildings increased, and the clear division among the areas vanished during this period.

**Keywords** : Preparatory Course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Higher Education Facility, Campus Site Plan, Japanese Colonial Era, National Archives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 Myungsun Kim(Sunmoon Univ.)

email: rosaria@sunmoon.ac.kr

Received March 15, 2022

Accepted June 3, 2022

Revised May 9, 2022

Published June 30, 2022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제강점기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은 식민지 조선 최초의 근대적 대학이었다는[1] 점에서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경성제대의 설립과 운영에서 주목되는 하나는 경성제대 예과(이하 '예과')의 존재이다. 예과는 경성제대에 진학하려는 모든 학생이 거쳐야 하는 예비과정으로 식민지 교육체제에서 만들어졌던 특이한 교육기관이었다. 따라서 경성제대와 예과의 건축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근대 고등교육기관의 실체를 다각도로 파악하는 데 있어 건축사 분야가 기여할 몫이라 하겠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성제대 및 예과 건축에 대한 연구의 첫 단계로서 예과 캠퍼스 배치의 변화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이후 경성제대 및 예과 건축에 대한 다각도의 심도 있는 연구에 토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근대 고등교육시설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예과는 1924년 개교해서 1945년까지 존속했다(광복 이후에는 '경성제국대학 예과'가 아닌 '경성대학 예과'라는 명칭으로 유지되다 1946년 국립 서울대학교에 흡수됨). 하지만 개교연도인 1924년보다 앞선 1922년 부지가 선정되고 부지조성 및 설계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20년대 초반부터 1945년까지로 한다.

주요 분석 자료는 조선총독부 설계부서가 생산한 예과 건축도면과 경성제대 및 예과가 매년 발행한 학교일람에 수록된 캠퍼스 배치도이다. 예과 건축도면은 국가기록원의 '일제시기 학교건축도면 콘텐츠'[2]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이 콘텐츠에는 총 1,670매의 경성제대 관련 도면이 있으며 그 중 241매가 예과 관련 도면이다. 한편 경성제대(1926년 개교) 및 예과는 개교 이후 매년 『경성제국대학일람』(이하 『경성제대일람』 및 『경성제국대학예과일람』(이하 『예과일람』))을 발간했는데 그 권말에 간략한 배치도가 수록되어 있어 시기별 캠퍼스의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밖에 예과 건축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학무국과 예과가 주고받은 조선총독부공문서, 경성제대 동창회 발간 자료, 기타 신문·잡지의 기사 등 1

차 자료와 경성제대 및 예과를 다룬 근대교육사 연구 등 2차 자료도 살펴보았다.

## 2. 경성제대 예과의 설립·운영과 부지상황

### 2.1 예과의 설립 및 운영

예과 제도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인의 고등교육에 소극적이었던 일제의 차별적 교육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제국대학에 진학하려면 고등학교(현재의 일본 고등학교와 달라서 '구제(舊制)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칭하기도 함)를 졸업해야 했다. 이에 따라 경성제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선에도 고등학교 과정을 개설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식민지 조선 학생들의 일본 내 제국대학 유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고등학교 대신 경성제대 입학만을 허용하는 예과를 설립한 것이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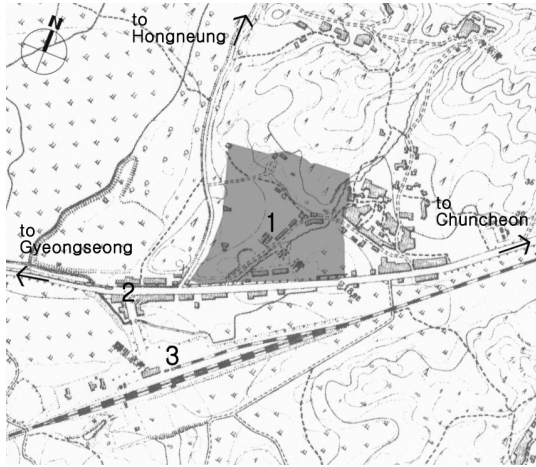
경성제대는 개교 당시, 법문학부와 의학부 2개 학부만 두기로 했고(1941년 이공학부 추가신설) 이에 대응하여 예과에는 문과와 이과를 편성하였다. 문과, 이과는 각각 정원 40명 정도의 A, B조 2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한 학년은 160명 정도였다[4]. 전체 학생 중 조선인 학생 비율은 1/3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소위 '내선일체'를 내세워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선전하였으나 조선인 학생의 입학은 까다롭게 관리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다수인 일본인 학생을 우선시하는 학교로 운영되었다[5].

예과의 문과 수료자는 경성제대 법문학부(법학, 철학, 사학, 문학의 4개 학과로 구성)로, 이과 수료자는 의학부로 진학했다. 수업연한은 2년제로 시작되었지만, 일본의 고등학교 과정이 3년인데 비해 부실하다는 비판이 일자 1934년도부터 3년제로 연장되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전세가 기울자 식민지 조선의 교육 전반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고, 1943년 예과의 학제는 2년제로 환원되었다[3].

### 2.2 부지 상황

예과 캠퍼스 부지는 개교 당시 지명으로는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청량리'로 현재의 청량리역 북측 아파트 단지 일대이다. Fig. 1은 1921년 발행된 경성 동북부 지도 중 일부로, 예과 캠퍼스가 조성되기 전 부지 상황을 잘 보여준다. 부지가 위치한 곳은 주변에 넓은 농지가 펼쳐져 있고 후면에는 흥릉이 위치한 한적한 교외지역

이었다. 하지만 부지 남측으로 경성과 춘천을 잇는 경춘 가도가 인접하고 서측으로는 홍릉으로 가는 도로가 조성 되어 있어 두 개 도로에 접한 부지였다. 또 이른 시기에 개통된 전차역(1899년)과 경원선 철도역(1911년)이 가까운 곳에 입지해 있었다.



1. site/ 2. tram station/ 3. train station  
Fig. 1. Site(gray area) on the map of 1921 [6]

예과 캠퍼스는 폐교 이후에도 국립 서울대 의대 등에 의해 사용되다 본관을 마지막으로 2015년 완전히 철거 되었다. 하지만 이미 1970년대 중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며 본관을 제외한 대부분 건물은 이미 사라졌다[7]. Fig. 2는 1977년 촬영한 예과 캠퍼스가 있던 부지의 항



Fig. 2. Aerial photo of site (1977) [8]

공사진으로, 사진 중앙부에 있는 본관만 남긴 채 아파트 단지가 공사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3. 예과 캠퍼스 배치의 변화과정

#### 3.1 시기 구분

예과 캠퍼스의 변화과정은 매년 발행된 『예과일람』 및 『경성제대일람』 권말에 수록된 예과 캠퍼스 배치도들과 ‘일제시기 학교건축도면 콘텐츠’의 배치관련 도면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자료를 분석하면 예과 캠퍼스의 변화과정은 1936년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Fig. 3). 1936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예과 수업연한이 1934년부터 3년으로 연장된 것과 관계 깊다. 1934년 입학생이 3학년이 되는 1936년부터 3개 학년이 존재하게 되어 그만큼 시설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과 재학생수는 1935년 309명에서 1936년 448명으로 50퍼센트 가까이 증가하였고, 1939년부터는 542명으로 500명대로 진입하였다(Tab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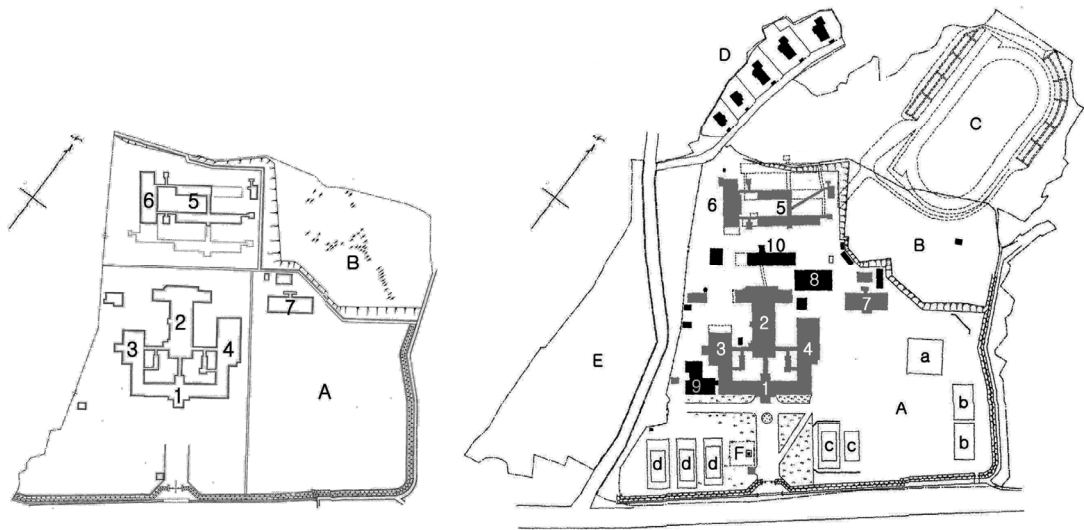
Table 1. Chronological change in enrollment

year	1924	1925	1935	1936	1937	1939	1942
enrolled student	168	319	309	448	461	542	643

\* data from [9]

Fig. 3은 1924년 『예과일람』 권말 배치도(a)와 1939년 『경성제대일람』 권말 배치도(b)인데, 전기와 후기를 대표한다. 1924년 배치도(a)는 예과가 개교한 해의 배치도이자 전기(1924~1935)에 이 배치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전기를 대표할 수 있다. 후기(1936~1945)를 대표하는 배치도로 1936년이 아닌 『경성제대일람』에 수록된 1939년 배치도(b)를 인용한 이유는 이 배치도가 후기에 있었던 부지확장과 건물증축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 『예과일람』의 배치도들과 달리 관사(官舍)가 표현되어 있고 운동장의 구체적 활용상황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Fig. 4는 큰 변화가 없었던 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축이 많았던 후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주요 증축이 이루어졌던 해의 배치도를 기반으로 캠퍼스의 주요 부분 배치를 도식화한 것이다.



(a) Former Period : 1924~1935 (Site plan of 1924 [10]) (b) Latter Period : 1936~1945 (Site plan of 1939 [11])  
 1. main building/ 2. special classroom building/ 3. auditorium/ 4. students hall/ 5. dormitory/ 6. dining hall/  
 7. judo & kendo hall/ 8. gymnasium/ 9. library/ 10. new classroom complex  
 A. school ground (a. baseball/ b. basketball/ c. volleyball/ d. tennis)/ B. archery/ C. 2nd school ground/  
 D. official residence/ E. botanical garden/ F. hoanden  
 Fig. 3. Site plans of 1924(a) and 1939(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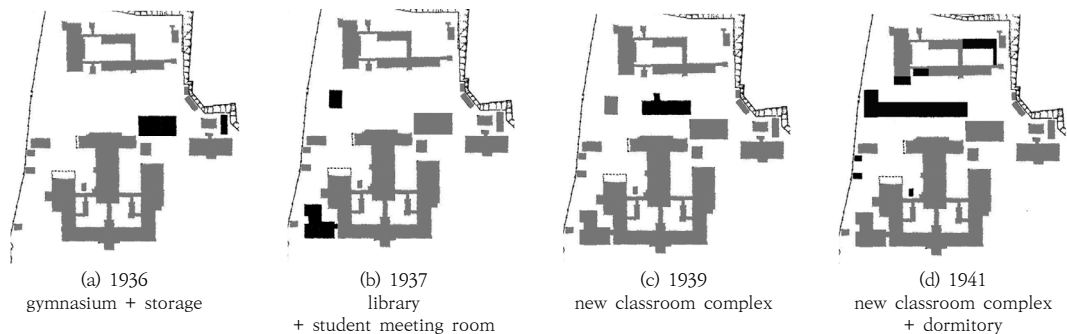


Fig. 4. Partial Site plan of 1936~1945

### 3.2 전기(1924~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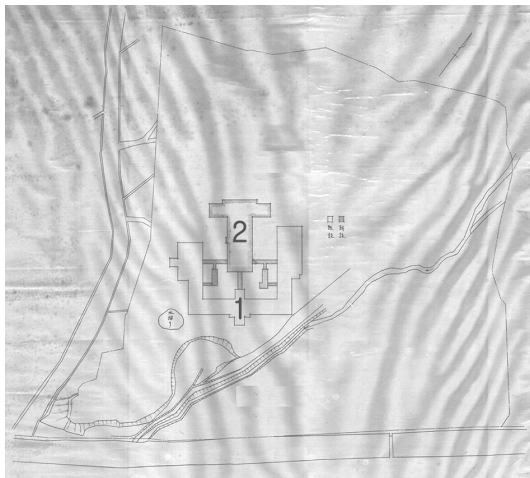
#### 3.2.1 캠퍼스 조성의 단기 완성

Table 2는 예과 캠퍼스 건립 관련 주요 연혁이다. 1923년 5월 본관 착공을 시작으로 1924년 8월 기숙사 준공까지 주요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와 함께 부지 정리 작업 등 캠퍼스 조성이 대부분 완료되었다. 이후 전기(1924~1935) 동안 부지면적의 증감이나 눈에 띄는 건물 증축은 없었다. 캠퍼스 공사 착공이 계획보다 1년 늦어져[12] 본관만 개교 전에 준공되고 특별교실동과 기숙사는 개교 후 공사가 종료되기는 하였지만 총 15개월 만에 캠퍼스 조성이 완료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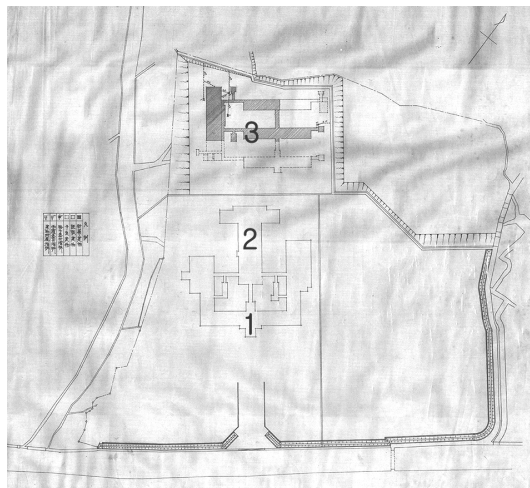
Table 2. Chronology

Year	Events
1922. 7	campus site secured
<b>1923. 5</b>	<b>start of construction for main building</b>
1923. 9	start of construction for special classroom building
<b>1923. 12</b>	<b>main building completed</b>
1924. 5.12	start of lecture
1924. 6.12	school opening ceremony
<b>1924. 7</b>	<b>special classroom building completed</b>
<b>1924. 8</b>	<b>dormitory completed</b>
1926. 3.1	1st completion ceremony

1926. 5	start of lecture (Keijo Imperial Univ.)
1934	change to three-year course
1936	enlargement of campus site (21,000py → 32,900py)
1941	new divis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established in Keijo Imperial Univ.
1943	return to two-year course



(a) Early phase 1 [13]



(b) Early phase 2 [14]

- 1. main building complex (completed in December 1923)
- 2. special classroom building (completed in July 1924)
- 3. dormitory (completed in August 1924)

Fig. 5. Site plan of early phase

Fig. 5는 개교 초기에 작성된 배치도들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캠퍼스 조성상황을 엿볼 수 있다. Fig. 5-(a)는 먼저 건립된 '본교사' (Fig. 3의 1, 3, 4 : 본관, 강당, 생도공소(生徒控所)를 통칭하여 당시 도면이나 건축잡지 「조선과건축(朝鮮と建築)」에서 사용한 용어) 후면에 특별 교실동(Fig. 3의 2)을 신축하기 위한 배치도이다. 이 도면을 보면 건물만 지어졌을 뿐 대부분의 토목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교사 앞 기존 지형도 그대로이고 기숙사와 운동장 부지 조성을 위한 경사면 처리도 시작하지 못했다. 정문이나 부지 경계부 담장 등의 작업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요소들은 Fig. 5-(b)의 기숙사 신축을 위해 작성된 배치도에 표현된 것으로 보아 기숙사 공사와 함께 비로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급박하게 진행된 캠퍼스 조성상황은 개교 초기를 회상하는 졸업생의 다음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교문도 담장도 없이 그저 넓기만 하다고 생각되는 붉은 대지(赫土) 위에 연와조의 3층 건물(본관: 필자 주)이 높이 서 있었다[15].”

이처럼 캠퍼스 조성이 급하게 진행된 것은 예과 개교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진 것이나 부지를 확보하고도 예산이 해결되지 않아 착공이 1년 가까이 지연되는 등[3] 예산문제를 포함한 개교 준비작업이 순조롭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 3.2.2 명확한 영역 구분

전기를 대표하는 Fig. 3-(a) 배치도를 보면 캠퍼스는 4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부지 서측에서 아래쪽이 교사동 영역, 위쪽이 기숙사 영역이며, 부지 동측에서는 아래쪽이 운동장 영역, 위쪽이 궁도장 영역이다. 여기에서 궁도장은 안전문제 때문에 캠퍼스 내 가장 높은 지대(동북쪽)에 위치하여 다른 지역들과 구분되며 자연스럽게 캠퍼스 외곽지대로 인식된다. 따라서 캠퍼스를 구성하는 주요 영역은 교사동, 기숙사, 운동장의 3개 영역으로 압축된다. 이 3개 영역은 각각 교육, 거주, 운동 기능을 담당하며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명확한 영역 구분은 Fig. 3-(a)에서 각 영역을 구분하는 두 선에 의해 강조되어 보인다. 이 선은 '일제시기 학교건축도면 콘텐츠'의 배치 관련 도면들에 '하수(下水)'로 표기되어 있고, Fig. 6과 같은 상세도도 있어 철제 격자 덮개(grating)로 덮여 있는 배수로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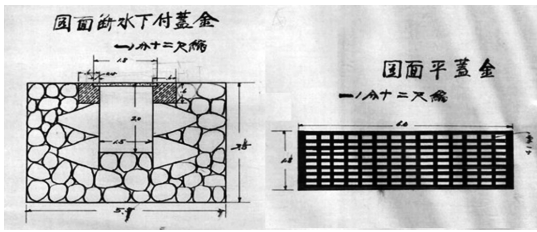


Fig. 6. Drawings of drain [16]

### 3.2.3 영역별 특성

#### 1) 교사동 영역

##### A. 본교사 및 특별교실동

교사동 영역의 건물들을 살펴보면 본관, 강당, 생도공소가 한 건물로 복합된 '요(凹)'자 형태의 본교사 후면 중앙에 특별교실동이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산(山)'자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건물형태와 배치는 캠퍼스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본관의 파사드가 정문(교문)에서 바라볼 때 분명하게 부각되면서 나머지 동들은 짧은 동선으로 연결되는 장점을 갖는다(Fig. 3-(a), Fig. 7, Fig. 8).



Fig. 7. Main building with students hall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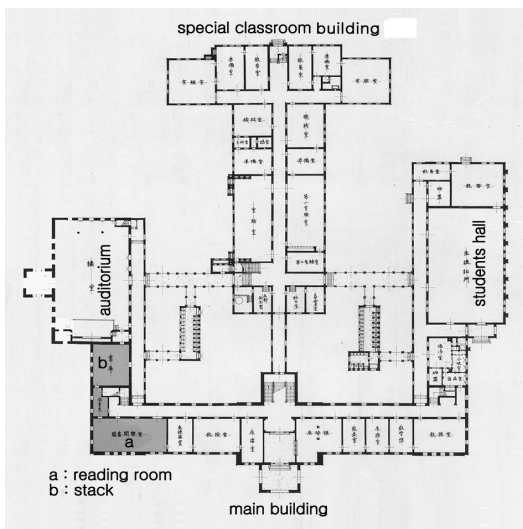


Fig. 8. 1<sup>st</sup> Floor plan of Main building complex (main building+ auditorium+ students hall) with special classroom building [18]

또한 정문이 있는 남측도로(경춘가도)에 평행하게 배치된 본관의 행정제실(諸室), 교수실, 일반교실 등이 모두 남향하는 장점도 있다. 강당, 생도공소, 특별교실 등의 일조조건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만 이들 공간의 학생 체류시간은 일반교실보다 짧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강당과 생도공소는 본관과 통합하여 '본교사'로 처리한 데서 볼 수 있듯이 핵심시설로 계획되었다. 실제로 강당과 생도공소는 본관과 함께 가장 먼저 건립되었다. 또 건립 비용이 충분치 않은 학교에서는 강당과 생도공소를 겸용하기도 하지만 예과에서는 별도로 계획하였다. 강당과 생도공소를 별도로 계획할 경우 강당은 대외행사나 의식 등의 용도로, 생도공소는 수업시간 외 대기장소나 실내 체육활동에 사용되었다. 때문에 예과에서 강당은 외부 이용을 고려해 서측 도로 쪽으로, 운동공간의 성격도 가지는 생도공소는 운동장 쪽으로 배치했다(Fig. 3-(a), Fig. 7, Fig. 8).

본관, 강당, 생도공소는 실내복도로 연결되는 한 동의 건물(본교사)로 계획했지만, 특별교실동만은 외벽 없는 연결복도로 본교사와 이어지는 별동으로 처리했다(Fig. 8). 이는 특별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등의 위험 때문에 특별교실은 별동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원칙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19].

##### B. 진입공간

교사동 영역에서는 본교사 및 특별교실 외에도 정문에서 본관에 이르는 진입공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Fig. 3-(a) 1924년 배치도를 보면 이 진입공간에는 정문과 문위소(門衛所: 경비실)만 배치되어 있을 뿐이지만, Fig. 3-(b) 1939년 배치도에는 정원과 '어진영봉안소(御眞影奉安所: Fig. 3-(b)의 F, 이하 봉안소)'가 추가로 조성되어 있다(봉안소는 1928년 배치도에서부터 등장). 이를 보면 정문에서 본관에 이르는 진입공간을 캠퍼스 전체에서 가장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려 한 계획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정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본관을 캠퍼스 내에서 가장 높은 3층으로 계획하고 중앙부를 박공면으로 처리하여 정면성을 강조한 점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Fig. 7).

##### 2) 기숙사 영역

부지 서측 후면(북쪽)에 위치한 기숙사 영역은 숙소동(남향의 일(-)자형 건물 2개 동), 식당동, 병실과 이들을 잇는 연결복도 그리고 연결복도에서 돌출된 현관과 변소

로 구성된다(Fig. 3의 5 및 6, Fig. 9). 여기에서 병실은 환자 발생 시 격리수용을 위해 계획되었지만 1929년 배치도 이후에는 '특별자습실'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용도도 기숙사 소등시간 이후의 자습공간으로 바뀌었다.

편복도형의 숙소동은 남향 일자형 배치로 철저하게 향위주로, 식당과 주방으로 구성된 식당동은 남북방향으로 길게 배치하여 동선을 단축하면서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계획하였다. 숙소동은 두 동 모두 2층이며 일조조건을 고려하여 건물높이: 인동간격이 1:1.3 정도로 유지되도록 계획하였다(건물높이 약 9.5 미터, 인동간격 약 12.6 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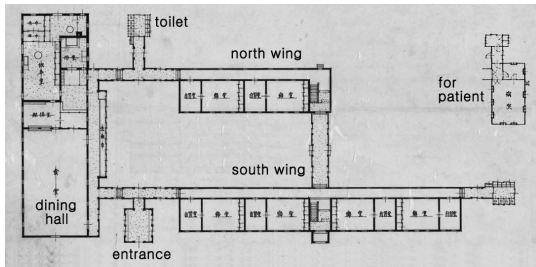


Fig. 9. 1<sup>st</sup> Floor plan of dormitory [20]

Fig. 3-(a)를 보면 숙소동은 최종적으로는 같은 길이의 3개 동으로 구성되도록 계획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숙소동은 2개 동만 실현되었다. 점선으로 표현된 가장 남쪽 동이 끝내 실현되지 않은 것인데, 후술하겠지만 대신 이 자리에는 일반교실과 특별교실로 구성된 '신관(新館)'이 증축되었다(Fig. 3-(b), Fig. 4-(c), (d), Fig. 13). 때문에 기숙사 숙소동은 학교가 폐교할 때까지 2개 동만 있었고 각각 남료(南寮), 북료(北寮)로 불렸다.

### 3) 운동장 영역

전기 배치도 Fig. 3-(a)에는 운동장 영역에 무도장(武道場: Fig. 3의 7)과 운동장 구획만 표현되어 있어 운동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후기 배치도 Fig. 3-(b)에서 운동장의 활용상황이 표현되기 시작하는데, 야구장이 가장 넓게 자리하고 운동장 외곽으로 배구장, 농구장 같은 구기종목 경기장이 배치되어 있다. 전기에도 후기와 동일하게 운동장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개교 첫해인 1924년도에도 12개 종목에 걸쳐 운동부가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10]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운동장 영역 북측에 배치된 무도장은 개교한 해인

1924년 건축되어 건립순서가 빠른 편이고 유도장과 검도장을 별도로 구성했을 뿐 아니라 욕실, 변소 등 부속시설도 갖추고 있어 꽤 공들인 건물임을 알 수 있다(Fig. 10). 또한 운동장 북측 궁도장(Fig. 3의 B) 법면의 경사도를 무리하게 조정하면서까지 무도장 부지를 분명하게 확보하고 있다. 이런 점들로 보아 무도장은 캠퍼스 건립과정에서 중요시설로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무도장을 중요시한 배경에는 '체조' 교과목 '교수요지(教授要旨)' 및 수업상 주의사항'에서 '체조(體操)는 교련과 체조(體操)를 교수하여야 하며 검도와 유도를 더할 수 있다[21].'라고 특별히 언급할 정도로 검도와 유도가 중요시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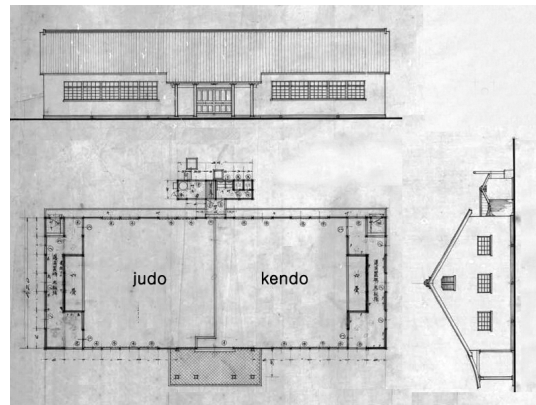


Fig. 10. Martial arts hall [22]

## 3.3 후기(1936~1945)

### 3.3.1 캠퍼스 확장

예과 수업연한이 3년으로 연장된 1934년 이후 2년이 지난 1936년도부터 캠퍼스 배치상 변화가 나타난다(Fig. 3-(b), Fig. 4 참조). 부지면적이 크게 확대되었고 건물들이 증축되었다. 후기에 나타나는 부지확장과 건물 증축은 『조선과건축』 1936년 7월호 기사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다.

“약진 도상에 있는 경성제대는 그 내용의 충실과 시설의 완비에 애쓰고 있는데 이번 동(同)예과의 대확충을 계획하고 이왕가(李王家)로부터 동학교 북편으로 이어지는 1만6천평의 광대한 땅을 양도받아 이미 설비 완전한 현대식 우천체조장과 생도집회장을 준공했고, 이어서 동양에 자랑할 만한 트랙의 설치와 도서관, 기숙사 등의 증축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23].”

위 기사 내용과 수치 상 차이가 있지만 『예과일람』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면 1936년부터 부지면적이 21,000평에서 32,900평으로 11,900평 증가한다. 넓어진 부지에는 제2운동장, 식물교재원, 관사가 배치되었다(Fig. 3-(b)의 C, E, D).

이들 중 관사를 제외한 제2운동장과 식물교재원은 폐교가 얼마 남지 않은 1943년 배치도에도 ‘예정지’로 표기되어 있어 끝내 조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4~1945년 『예과일람』이나 『경성제대일람』이 전해지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당시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관사는 고등관(高等官)용 3동과 판임관(判任官)용 2동, 총 5동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고등관은 일제강점기 교수에 부여한 관등(官等)이며, 판임관은 그보다 낮은 관등이다. 5개 동 모두 단층이고 관등별로 동일 평면의 표준도면을 적용하였다. 당시 표준도면은 남향을 전제로 제작되기 때문에 5개 동 모두 캠퍼스 서측 도로로부터 진입로를 확보해 정남향으로 배치하였다. 1939년도 『경성제대일람』 권말 배치도에서부터 관사가 표현되기 시작해 이 시기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 3.3.2 영역 내 고밀화와 영역구분 희석

부지확장과 함께 건물들도 증축되는데 우천체조장, 도서관(각각 Fig. 3-(b)의 8, 9, Fig. 4-(a), (b)), 신관(Fig. 3-(b)의 10, Fig. 4-(c), (d), Fig. 13), 기숙사(Fig. 4-(d), Fig. 13)가 주요 증축건물이다. 네 곳 모두 후기에 건축되었지만 Table 3에서 보듯 우천체조장과 도서관은 1930년대 후반에, 신관 및 기숙사는 1940년대 초반에 증축되었다. 증축 배경에도 차이가 있다. 우천체조장과 도서관은 1934년 예과 수업연한 연장이, 신관과 기숙사는 1941년 경성제대 이공학부 신설에 따른 예과의 이과생 증원이 배경이 되었다.

3.3.1에서 전술한 것처럼 후기에 확장된 부지에는 제2운동장, 식물교재원, 관사가 배치되었다. 이 때문에 관사를 제외한 건물증축은 확장된 부지가 아닌 기존 교사동 영역과 기숙사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특별교실동과 기숙사 사이에서 우천체조장, 신관 같은 규모가 큰 건물이 증축되어 이 부분의 건물 밀집도는 높아지고 교사동과 기숙사 두 영역간 구분도 불분명해졌다. 이와 함께 초기 배치계획에서 보였던 단순명쾌한 배치질서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다(Fig. 3).

Table 3. Newly-built or extended buildings in the latter period (1936~1945)

Building construction		Background	
Year	Building name	Year	System change
1936	Gymnasium	1934	Change from 2 year to 3 year course
1937	Library		
1940	New classroom complex (former phase)	1941	Creation of new division(science & engineering) in Keijo Imperial Univ.
1941	New classroom complex (latter phase) dormitory extension		

### 3.3.3 영역별 특성

#### 1) 운동장 및 정원

3.2.3의 3)에서 전술한 대로 Fig. 3-(b) 1939년 배치도에는 운동장의 활용상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다양한 구기종목 경기장이 배치되어 있고 확장된 궁도장 북쪽 부지에는 ‘동양에 자랑할 만한 트랙’(3.3.1 『조선과 건축』 인용글 참조)과 관중석을 갖춘 제2운동장을 계획하고 있다. 심지어 정문과 본관 사이 상징성이 요구되는 진입공간에도 테니스 코트를 배치하여 운동시설 확보가 중요한 계획요소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1939년 배치도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정문과 본관 사이 진입공간에 정원이 표현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 공간은 캠퍼스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1935년까지는 봉안소, 원형 화단 등이 설치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후기가 시작되는 1936년부터 진입로 양측과 본관 정면에 화단을 배치해 본격적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교육시설의 외부공간에 정원을 조성한 사례는 경성제대 외에는 찾기 힘든데, 예과 캠퍼스에 정원이 조성되었다. 다만 전기에는 실현하지 못한 채 공간만 확보했고 ‘예과 대확충’(3.3.1 『조선과건축』 인용글 참조)이 이루어진 후기에 비로소 조성계획이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 2) 우천체조장 및 도서관

##### A. 우천체조장

후기에 증축된 건물 중 가장 먼저 건립된 것은 우천체조장(Fig. 3-(b)의 8, Fig. 4-(a), Fig. 11)으로 1936년 배치도부터 나타난다. 운동시설이지만 운동장 영역이 아닌 기존 특별교실동 뒤쪽에 배치되는데, 운동장 영역에는 이미 무도장(Fig. 3의 7)과 각종 구기종목 경기장이 들어서 있어 부지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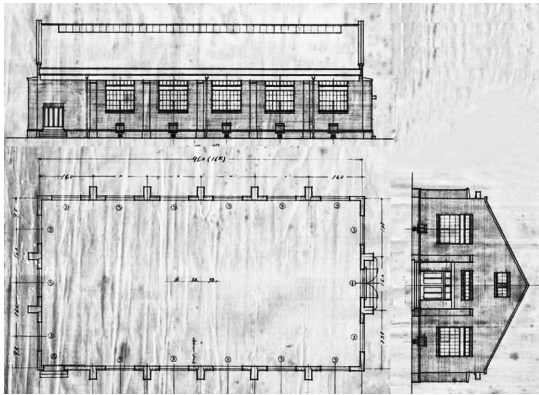


Fig. 11. Gymnasium [24]

조선총독부공문서 「대정16년(1927년: 필자 주) 경성 제국대학 예과예산 요구서」[25]에는 우천체조장 신축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 그동안 예과에 우천체조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 생도공소를 겸용해 왔는데, 체조시간이 매주 24시간이어서 동절기나 우기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전용 체조장 건축의 인가와 예산을 요구한다. 이 공문서가 1926년 작성된 것으로 보아 개교 초기부터 별도의 우천체조장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배치도에서 '생도공소'를 표기하는 용어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다. 『예과일람』 권말 배치도를 보면 1924년에는 '생도공소'로 표기되지만 1926년부터 1935년까지는 '우천체조장' 또는 '실내운동장'으로 표기된다. 이후 전용 우천체조장이 건립되는 1936년 배치도부터 다시 '생도공실(生徒控室)' 또는 '생도공소'로 표기하여 학생 대기소 본래 기능에 합당한 명칭으로 환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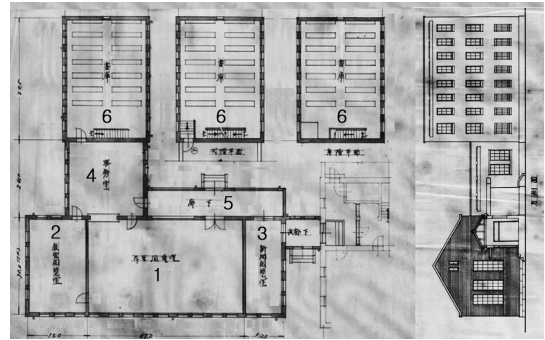
기존 생도공소가 본관의 일부로 처리되고 창고, 변소 등의 부속공간이 인접된 것과 달리, 새로 건립된 우천체조장은 실내운동 전용시설로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부속공간도 연결복도도 없는 독립된 건물로 지어졌다(Fig. 8 및 Fig. 11).

### B. 도서관

우천체조장 다음으로 본관 서측에 도서관이 별도로 건립된다(Fig. 3-(b)의 9, Fig. 4-(b)). 독립건물이지만 단순한 구조였던 우천체조장과 달리 도서관은 서고 같은 부속공간이 분명하게 갖춰지고 열람공간도 세분되어 있다(Fig. 12).

특히 서고는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입면도를 보면 주공간인 열람공간과 비슷한 규모를 가진 별동처럼 보인다.

전기에는 본관의 한 구역을 할애하여 도서실 정도로 처리되었지만(Fig. 8) 후기에 제대로 서고까지 갖춘 독립된 도서관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만큼 캠퍼스 내에서 위상도 커졌다. 하지만 별도의 도서관은 주요 건물들이 모두 배치된 Fig. 3-(a)의 전기 배치도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캠퍼스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관의 좌측에 나란히 위치할 정도로, 후기에 증축되는 어느 건물보다 배치상 위상은 높지만 캠퍼스 전체에서는 다소 외진 곳에 배치될 수밖에 없었다.



1. reading room (student)/ 2. reading room (professor)  
3. newspaper/ 4. office/ 5. corridor/ 6. stack  
Fig. 12. Library [26]

### 3) 신관 및 기숙사

#### A. 신관

Fig. 13은 신관과 기숙사를 증축하기 위해 작성한 배치도로, 예과 캠퍼스 건물 증축의 마지막 단계(Table 3)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이를 보면 신관은 이미 건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측으로 증축할 예정이며 기숙사에서 북측 숙소동 등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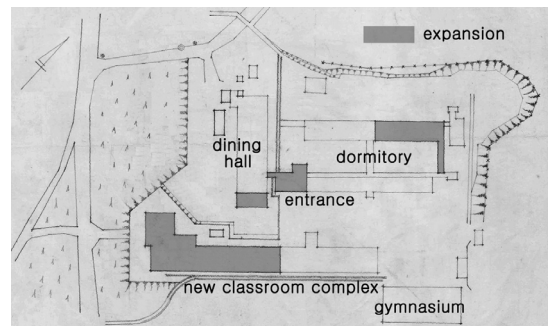


Fig. 13. Site plan showing new classroom complex and dormitory [27]

신관은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이 섞여 있는 교사동으로 '이갑교실(理甲教室)'로도 표기되었다. 여기서 '이갑'은 '이과갑류(理科甲類)'의 줄임말로 이공학부 진학이 예정된 학급을 의미한다. 경성제대 이공학부 신설에 대응하기 위해 1938년 이과 정원을 증원하며 새롭게 만들어진 학급이다. 이때 문과는 갑류, 을류 2개 학급으로, 이과는 갑류(이공학부 진학) 1학급, 을류(의학부 진학) 2학급, 총 3개 학급으로 구성하였다. 이 때문에 개교 이후 비슷하게 유지되던 문과 대 이과 입학생 수는 1938년 이후 이과 입학생 수 비율이 높은 상태로 바뀌어 폐교 시까지 지속되었다(Fig. 14). 신관은 이렇게 증원이 된 이과생, 특히 이공학부 진학예정인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증축되었다.

신관이 증축된 곳은 전기 배치도 Fig. 3-(a)에서 기숙사 증축 예정지로 표시한 곳 중 가장 남측 숙소동 위치이다. 이 때문에 교사동 영역이 기숙사 영역을 침범하는 형국이 되면서 전기 배치계획의 명확한 영역 구분이 깨진다.

신관의 증축은 두세 단계 정도로 나누어 3년간(1939~1941년)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과정이 최종단계의 평면을 토대로 단계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건립해간 것이 아니었다. 최초에는 단층건물에서 시작해 조금씩 면적과 층수를 늘려가는, 임시방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Fig. 3-(b), Fig. 4-(c),(d), Fig. 13). 3.2.3의 1)에서 전술한 대로 사고 위험 때문에 특별교실은 별도로 구분하는 계획원칙도 따르지 않았다. 이는 당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었거나 일제가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예과의 건축 공사비 조달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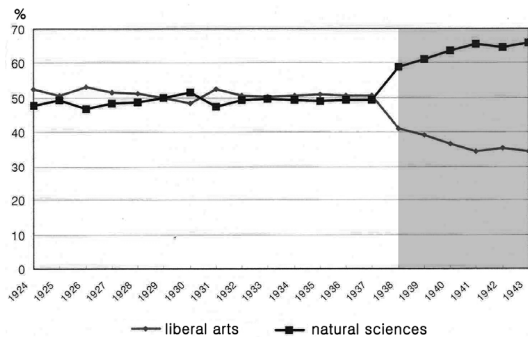


Fig. 14. Chronological change of the liberal arts - natural sciences ratio in the number of freshman [28]

## B. 기숙사

신관 건축과 비슷한 시기에 기숙사 북측 숙소동(북료)의 동측 부분, 남측 숙소동(남료)의 현관 부분(승강구, 사무실, 숙직실 등으로 구성), 식당동에서 증축이 이루어진다(Fig. 4-(d), Fig. 13). 졸업생 회고에 따르면, 이 증축도 신관 증축과 마찬가지로 경성제대 이공학부 증설에 따른 이과 학생수 증가 때문이었다[15]. 기숙사는 증축되었지만 3.2.3의 2)에서 전술한 대로 당초 계획(3개 숙소동)보다 축소되었다. 1939년 배치도(Fig. 3-(b))를 보면 북료 북측에 점선으로 증축 예정 숙소동 1개동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숙소동도 폐교 시까지 지어지지 않았다. 결국 개교 초기 계획했던 3개 숙소동으로 구성된 기숙사는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기숙사가 축소되어 건축된 것은 학교 당국이 기숙사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식민지 조선의 예과에 해당하는 일본의 교육과정인 구제 고등학교는 '전원 기숙사제(全寮制)'를 원칙으로 했지만[5] 예과는 이러한 방침을 두지 않았다. 이는 반일감정이나 불편한 기숙사 구조 등의 이유로 식민지 조선 학생들이 기숙사 입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배경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4].

## 4. 결론

예과 캠퍼스 건립 당시 부지는 현재의 청량리역 인근으로 경성 동북부의 한적한 교외지역이었으나 도로, 전차, 철도 등 기반시설은 구축되어 있었다.

예과 캠퍼스 배치의 변화는 1936년을 경계로 전기(1924~1935)와 후기(1936~1945)로 나뉘는데, 예과 수업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것이 계기가 된다. 전기에는 개교를 전후하여 캠퍼스 조성이 단기간 급박하게 진행된다. 이 시기 예과 캠퍼스는 교사동-기숙사-운동장의 3개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면서 건물들은 질서정연한 배치특성을 보인다.

후기에는 부지가 확장되는 한편 수업연한 연장 및 이과 증원에 따라 시설수요가 늘어나 건물이 증축된다. 그런데 확장된 부지는 유보지로 남겨지고 증축은 기존 건물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때문에 건물들의 밀집도는 높아지고 전기의 명확한 영역구분과 질서정연한 배치 특성은 깨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개교 초기의 부지조성이나 배치계획이 학제변화, 학과증설, 학생수 증가 등 예상할 수 있는 장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여유 없는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예과 캠퍼스에 주목하여 그 배치의 변화과정을 규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후 일제강점기 예과와 유사한 학교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문학교나 경성제대 캠퍼스와의 비교 등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J. Y. Jung, *Keijo Imperial University and Colonial Hegemony*,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1-2, 2009.
- [2] Architectural Drawings Collection of the Schoo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vailable From: <https://theme.archives.go.kr/next/dwg/dwgMainView.do> (accessed on Feb. 26, 2022)
- [3]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to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895-1946*,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6, pp.466-467, p.468, p.483.
- [4] C. W. Lee, & C. K. Choi, *Keijo Imperial University* (revised edition), Prunsasang, 2013, p.44, pp.76-81.
- [5] S. E. Joung, *Study on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Moonumsa, 2002, p.74, p.82, pp.87-88.
- [6] Archives of Museum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Available From: [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map\\_view.do?scale=10&doc\\_id=J103-006-006&seq=44207&pcnt=37&img\\_nm=J103-006-006-001.jpg](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map_view.do?scale=10&doc_id=J103-006-006&seq=44207&pcnt=37&img_nm=J103-006-006-001.jpg) (accessed on Feb. 26, 2022)
- [7] S. D. Kim, *Seoul Declaration*, Open Books, 2018, p.399.
- [8] National Territorial Information Platform, Available From: <http://map.ngii.go.kr/ms/map/Aerial.do> (accessed on Feb. 26, 2022)
- [9] Education bureau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edit.), *Handbook of Schools in Joseon*, 1939, 1942, Joseon printing office, 1939, 1942.
- [10] Preparatory Course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edit.), *Preparatory Course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Annual Report: 1924*, Preparatory Course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1924, pp.90-92.
- [11] Keijo Imperial University (edit.), *Keijo Imperial University Annual Report: 1939*, Keijo Imperial University, 1939.
- [12] Dong-A Ilbo 1923.4.19.
- [13] Architectural Drawings Collection of the Schoo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vailable From: <https://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etNum=07600003> (accessed on Feb. 26, 2022)
- [14] Architectural Drawings Collection of the Schoo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vailable From: <https://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etNum=07600006> (accessed on Feb. 26, 2022)
- [15] Keijo Imperi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edit.), *Far Away in the Blue Sky*, Keijo Imperi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1974, pp.30-31, p.35.
- [16] Architectural Drawings Collection of the Schoo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vailable From: <https://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etNum=07600020> (accessed on Feb. 26, 2022)
- [17] Busan Museum, *Modern Scenery through Photo Postcards*, Minsokwon, 2009, p.264.
- [18] Architectural Drawings Collection of the Schoo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vailable From: <https://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etNum=16600001> (accessed on Feb. 26, 2022)
- [19] J. W. Lee, "A Study on the Specialized Classroom of Governmental Secondary School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4, p.2480, April,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4.2476>
- [20] Architectural Drawings Collection of the Schoo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vailable From: <https://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etNum=16600004> (accessed on Feb. 26, 2022)
- [21] Ordinance of the Japanese Board of Education: Regulations On High School, Available From: [https://www.mext.go.jp/b\\_menu/hakusho/html/other\\_s/detail/1318059.htm](https://www.mext.go.jp/b_menu/hakusho/html/other_s/detail/1318059.htm)
- [22] Architectural Drawings Collection of the Schoo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vailable From: <https://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etNum=15400003> (accessed on Feb. 26, 2022)
- [23] "Expansion of the Preparatory Course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Joseon and Architecture*, Vol.15, No.7, July, 1936, p.55.
- [24] Architectural Drawings Collection of the Schoo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vailable From: <https://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etNum=00700003> (accessed on Feb. 26, 2022)
- [25] National Archives of Korea, Available From: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300805249&dsid=00000000028&gubun=search> (accessed on Feb. 26, 2022)
- [26] Architectural Drawings Collection of the Schoo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vailable From: <https://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etNum=06700004> (accessed on Feb. 26, 2022)

- [27] Architectural Drawings Collection of the Schoo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vailable From: <https://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etNum=02000008> (accessed on Feb. 26, 2022)
- [28] K. S. Jung, C. S. Chung, M. K. Park, J. Y. Jung, J. W. Cho and M. J. Kim, Colonial Power and Modern Knowledge: A Study on the Keijo Imperi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 Cultural Center, 2011, pp.517~518.
- 

이 정 우(Jeong-Woo Lee)

[정회원]



- 1989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 2009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관심분야>

학교건축, 한국근대건축사

---

김 명 선(Myungsun Kim)

[종신회원]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관심분야>

한국근대건축사, 건축문화재, 건축리모델링